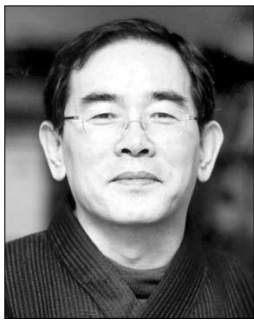




시작의 마음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교정이 활기에 넘친다. 개학할 무렵이면 늘 느끼는 학교 분위기지만, 1학기 개강 때와 2학기 개강 때가 또 다르다. 그리고 그 다음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신입생들이다.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들의 부푼 기대, 설렘이 학교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보여주려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거기에 한 몫을 거둔다.

새로운 물, 거기에는 순수함이 있다. 반면 어떤 쪽으로 물들어갈지 모를 불안함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해 주게 마련이다. 처음 시작이 좋아야 좋은 방향으로 쉽게 물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 반 이상의 중요함을 차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작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좋은 끝을 맺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말도 있다. 시작의 마음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가 앞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힘든 계획을 세우기 쉽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힘에 부치는 일이 반복되면 자신감만 줄어들게 된다. 그런 이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계획을 세워라. 대신 오랜 기간 꾸준히 계속해 보라. 모든 계획이 꼭 그럴 수는 없지만, 꼭 그렇게 오래 계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오랜 기간을 쌓아갈 때 오랜된 숲이 갖는 향기와 같은 품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아침 자신이 큰 비약을 이루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날이 온다. 자신감을 잃어가는 삶과 비약을 통해 질적인 향상을 이루어가는 삶의 차이... 그것이 인생의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미안마 스님들의 한글 배우기



한 불자가 미안마 스님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미안마 출신의 산디마 스님과 산디와라 스님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산디마 스님은 서울 암사동에 국내 유일의 미안마선원을 세웠다. 미안마인 노동자들은 산디마 스님과 선원을 통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랠라고 한다. 이런 미안마 스님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한 불자의 정성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장군축매

기대만큼 보람 못 느끼는 자원봉사



불교자원봉사자 대다수가 봉사활동에 생각만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발간한 '2002년 자원봉사활동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5%가 봉사활동에 불만을 털어놓고 있으며, 이 가운데 68.9%는 기대 이상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실 있는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인 셈이다.

지난 3월 1일 서울에서는 네 가지의 3·1절 행사가 열렸다. 첫째는 북한의 종교인 대표단 100여명이 남한의 종교인과 함께 참가하여 민족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3·1 민족대회'다. 두번째는 '3·1절 국민대회'로, 반공·친미를 내세우며, 각종 보수적 단체와 종교인, 정치인을 망라하여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세번째는 '3·1절 구국금식기도회'로,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주최하였다. 네번째는 700여 개의 '진보적'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3·1 민족자주·반전평화 촛불 집회'다.

친미적인 '3·1절 국민대회'와 자주와 반전(反戰)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는 여러 가지로 상반된 성격을 보여준다. 전자가 반(反)김정일, 반공,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반대와 한미동맹의 강화를 외친 반면, 후자는 반전·평화, 그리고 민족의 자주성 확립을 주장하였다. 집회 참석자도 차이를 보여, 전자는 주로 중·장년층인 반면, 후자는 대부분 20~30대의 젊은층이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시청 앞 기도회를 주도했던 한기총이 이번에는 구국 기도회를 개최하며, '3·1절 국민대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가지 면에서 앞서 열린 두 차례 시국기도회를 확대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3·1절 두 집회 '국론분열' 아니다



장석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3·1절을 맞아 서울에서 이처럼 상반된 집회가 열린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리고 이런 집회에 종교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극 참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떤 이는 해방 후 좌우대립 정국의 혼란상을 떠올리며 걱정이 많다고 하고, 또는 국론의 분열을 심히 염려하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해방 후와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국론이 통일되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사고방식은 파시즘적 독재의 냄새를 풍긴다.

민주사회는 시민 자신이 믿는 정치적 신조를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치적 입장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사회의 모습이다. 만약 하나의 정치적 입장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에 질식할 듯한 억압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낼 뿐이다. 국론 분열은 운하는 이는 대부분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다. 파시즘적 억압이 판을 치고 있던 시절을 기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시청 앞 연단 밑에는 여태껏 반공과 친미를 금과옥조로 무한 특권을 누리며 우익 정치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앉아 있었다. 그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치적 입장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사회의 모습이다. 만약 하나의 정치적 입장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에 질식할 듯한 억압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낼 뿐이다. 국론 분열은 운하는 이는 대부분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다. 파시즘적 억압이 판을 치고 있던 시절을 기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시청 앞 연단 밑에는 여태껏 반공과 친미를 금과옥조로 무한 특권을 누리며 우익 정치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앉아 있었다. 그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치적 입장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사회의 모습이다. 만약 하나의 정치적 입장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에 질식할 듯한 억압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낼 뿐이다. 국론 분열은 운하는 이는 대부분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다. 파시즘적 억압이 판을 치고 있던 시절을 기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시청 앞 연단 밑에는 여태껏 반공과 친미를 금과옥조로 무한 특권을 누리며 우익 정치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앉아 있었다. 그

들은 맹목적 반공주의자인 개신교 목사들과 함께 시위에 참가하였다. 지금까지 이들은 정치적 시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반공·친미정권이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이 거리에 나와 정치적 시위를 하게 된 것을 보니, 요즘 상황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그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정치적 입장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분위기가 비로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정치적, 종교적 지배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억압하여 침묵시켰다. 하지만 그동안 군림했던 지배 이데올로기는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다른 정치적 관점과 서로 경쟁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겉으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며, 음탕하게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던 종교인들은 스스로 공공연하게 정치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자신의 허구성을 폭로하게 되었다. 이제 친미, 반공의 종교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득을 챙겨온 이전의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고개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3·1절은 모두에게 소득이 된 셈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 경분열 '외국인 노동자 현실과 불교지원운동' 토론회

소수, 약자에 대한 관심은 수행·정진 과정



정진우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실장

한국 사회에는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공장에서 한국인들을 대신해 노동을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불행책이 아닌 한국 사회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과 한국 사회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연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김현숙

길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계에는 약 1억5천만 이주 노동자가 있다고 한다. 또 지난해는 가톨릭교회가 정한 제89차 세계 이민과, 난민의 날이다. 이날 교황의 메시지 요지는 '이주민과 종교간 대화'였다. 그리스도교동맹체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살아야 할 세상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서로 다른 종교인들 속에 안타깝게도 여전히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속제를 갖고 있다.

'대화'는 누구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생활 속의 대화가 그렇다. 인간관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소박



유승무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연수제의 도입이라는 발상에서 연유한다. 여기에는 외국인 노동의 착취를 통한 자본의 이윤 극대화라는 발상이 숨겨져 있다.

오늘날 선진적인 노동문화를 가진 많은 나라들이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불법상태에서 유발되는 사회문제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면, 그리고 최근 시장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제3세계의 빈곤화와 도시화를 고려한다면, 이 제도조차도 한시적

깊은 신뢰 바탕으로 지원 필요

한국말이 서툰다는 이유로 냉대와 차별의 시선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바라보았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불교의 힘은 모든 인간의 평등함을 기본으로 하고, 인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끝없는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의 소수자,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불자로서 당연한 수행과 정진의 과정일 것이다.

다른 종교인에 대한 편견 없어야

하고 일관된 일상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종교적 신념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우리 종교인들이 우선 실천하는 것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교황의 말을 대신으로 끝을 맺겠다. "대화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물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간직한 이 위대한 보화를 다양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민과 이방인들에게 어찌 나누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제·세부목표 설정 실천해야

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객관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교와 시민사회운동의 결합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사부대중의 노력, 즉 운동주체의 실천뿐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 혹은 불교사부대중이 운동의 과제 및 세부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운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일만이 남아있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시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주소 및 연락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부산 동구 범일 2동 830-50 정옥빌딩 503호 051)632-0064 / 011-219-506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녕 / 의령	해봉스님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213 옹정사 055)353-1196 / 017-650-1196
대구지사	대구·경북	손문철	대구 수성구 중동 532-274 053)768-8008 / 016-813-800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5-7 4/1 054)634-3429 / 011-9373-3778
광주지사	광주·전남	주용직	광주 서구 치평동 210-6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강원 강릉시 노암동 397 서일아파트 A동 503호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48-19 현대불교사 063)255-2274 / 011-9644-4579
동해지사	동해 / 삼척	해동스님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산 14번지 성불사 033)521-6293 / 019-9767-6297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충북 청주시 용담동 120-1(15/2) 광덕사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대전시 서구 월평동 807번지 불교조각원 지하 042)489-9390 / 017-433-6523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제매자 성 광 수씨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였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9114